

구원받은 자의 노래

담임목사 임영수



시편 107편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에 나타나 있는 어려움과 시련은 전쟁, 감옥생활, 질병, 폭풍의 바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에서 패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과 바다의 폭풍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 보았을 때 자신들이 그러한 상황에 결코 홀로 내버려져 있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불가능한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경험한 한 가지 공통된 것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려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 107편의 시작입니다. 이 시편에서 찬양과 감사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께서 모아들인 사람들아,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라(1-3).”

본문에는 어두운 네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장면은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4-5).”

이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에서 발견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희망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6-7).”

두 번째 장면은 10-16절의 내용입니다. 그림의 배경은 감옥의 내부입니다. 그곳은 어둡고 우울한 장소입니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함즐함울: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제 37호(격월간)

발행일 2002년 7월 6일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 - 4

우편번호 138 - 220

(정신여중 · 고 교내)

tel. 02 - 416 - 5181~2

fax. 02 - 416 - 518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ord-church.or.kr>

차 례

1 - 2

목회자 칼럼 / 담임목사 임영수

3

시론 / 김용직 집사

4 - 5

특별기고 / 김수호

5 - 6

선교소식 / 홍경환 선교사

6

소식 / 김종걸 집사

6 - 7

농촌교회에서 온 편지 / 서상희 목사

7

시 / 오종세 집사

8 - 9

독후감 / 좋은 신앙서적 읽기 모임

9

제언 / 최상용 안수집사

교회소식

10

성경 퍼즐

알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리도 돕는 이가 없었다(10-12).”
이 암울한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때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며 돛대문이 부서지고 쇠빛장이 꺾였
습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의 희망의 분기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 주시고,
그들을 얹어 맨 사슬을 끊어주셨다.
주께서 돛대문을 부수시고, 쇠빛장을 깨뜨리셨기 때문이다(13,
14, 16).”

세 번째 장면은 17-22절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매우 처참하고 불쌍한 장면입니다. 거기에 온갖 질병으
로 아픈 사람들이 여기 저기 널려져 누워 있습니다.
세번째의 처참한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밥맛까지 잃었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17-18).”

역시 이 장면의 그림에서도 희망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 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 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19-20).”

마지막 장면은 23-32절의 내용입니다.
배경은 바다입니다. 섬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입
니다.
거기에 고대의 돛단배들이 정상적인 항로를 따라 바다를 항해하
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어딘지 잘 모릅니다. 갑자기 멀리서 폭풍 구름이 나
타납니다.

네 번째 장면의 공포로 가득 찬 분위기가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바다 깊이 잠긴다.
그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 없이 된다(26-27).”

다시 한 번 이 시편의 중심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28-30).”

그러고 나서 시편 기자는 이 네 번째 그림의 결론을 덧붙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분을 기려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31-32).”

사막이나 감옥, 병상이나 풍랑 이는 바다는 모두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우리 인간의 경험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에서 말씀하는 결론은 사막에서, 감옥에서, 병
상에서, 폭풍이 이는 바다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는 시원한 물과 오아시스가 있고, 캄캄한 감옥 밖에는 상쾌한
공기가 있는 들판이 있으며 폭풍의 바다에는 잔잔한 물과 안전한 항
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위대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가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혼자만 있지 않습니다. 하
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
적인 암울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여기에 사용된 성경 본문은 표준새번역입니다.

축구와 정치: 필승 코리아에 스며 있는 공동체 재건의 열망

김용직 집사(회락 6구역,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극과 극. 사상 초유의 국민적 관심과 수십 만의 열광적인 길거리 응원 관중을 얻은 월드컵 축구경기와는 정반대로, 전국규모 선거 사상 최저의 48.9% 투표율을 보인 이번 지방선거판은 싸늘한 유권자들의 반응으로 파장 분위기가 되었다. 모처럼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 지도부는 시종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는 말로 긴장을 풀지 않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물론, 호남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참패한 민주당과 퇴출 위기에 몰린 자민련은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상태다.

그런데, 참으로 의아한 것은 대도시 투표율이 43~46% 대에 머무는 것에서 보이듯이 도시의 많은 유권자들이 때마침 고조되는 이 지역의 축구 열기와는 너무도 대조적으로 정치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월드컵 기간 중에 치러진 이번 선거가 '필승 코리아'로 가열된 애국적 분위기의 연쇄 효과로 선거 정치에도 긍정적 결과를 미칠 것이라는 일부 전망은 크게 빗나갔다.

이번의 사상 최저 투표율은 1990년대 이후 민주화의 시대에 접어든 한국 정치가 무기력증과 국민의 외면, 무관심으로 총체적 실패하였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히딩크가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우리에게 그토록 감동과 놀랄 만한 응원 열기를 고조시킨 것은 왜일까? 이는 축구를 통해 잃어버린 공동체 의식을 다시 찾은 것이다. 우리는 대-한국이다. 우리는 코리아다. 우리가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게 된 것에 우리는 히딩크와 태극전사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치를 둘러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분명해진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낱알이 까발리는 정치, 수치심과 미움을 증폭시키는 정치, 상대를 인정할 줄 모르는 애들 싸움보다 못한 정치인들의 행태. 끝이 보이지 않는 배제와 폭로, 위선과 독선의 정치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공동체 정신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역대 대통령의 천문학적 비자금 폭로와 줄줄이 이은 이들의 감옥행 이후에도 나라의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말이 안 된다. 정치권에서 유래한 총체적 불신감과 자기비하 의식은 정당 및 중앙과 지방정부뿐 아니라 90년대 이후 우리의 공동체 전체를 무기력증, 혼란, 그리고 무질서로 몰아갔다.

결국 유권자의 상당수는 축구와 정치, 두 가지를 전혀 다른 것, 즉 '새 것'과 '낡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월드컵 축구의 열풍이 새로운 팀으로 다시 태어나는 한국대표 축구단에 대한 국민적 지지라면, 6·13 지방선거는 낡고 부패한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새로운 축구팀의 탄생에 용광로의 불을 지핀 히딩크라는 지도자의 지도력에 우리 국민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지만, 거친 비방과 싸움으로 일관하는 구정치인들의 귀에 익은 구호들에 국민들은 애써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오히려 과분한 것이며 이들의 총체적인 불신과 혐오감을 정치권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야당의 압승은 국민들의 적극적 기대보다는 이러한 정치권 전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의미이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공멸의 위기에 처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공동협약에 들어 가야 한다.

공동체의 위기를 가속화시킨 한국 정치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지난 과오를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한국의 정당이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한 단계 높은 생산적이며 대승적인 대화와 협상의 정치로 거듭 태어났으면 좋겠다.

한 게임의 승부로 스포츠의 세계가 끝장나는 것이 아니듯이, 한번의 승패로 끝나는 것이 결코 정치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다. 정치는 승패를 받아들이며 또 다시 자기 정진에 들어가는 스포츠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이번 "대-한국"과 "오 필승 코리아" 합성에서 멋진 공동체로 한국이 다시 재건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신세대의 염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기성세대와 정치인들은 과거지향적인 상쟁의 정치를 즉시 중단하고 새로운 희망의 정치로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월드컵 합성에 스며 있는 공동체 재건을 열망하는 국민의 소리에 부응해야 하겠다.

간단하게 두어 마디만 해

김수호¹⁾(희락 1구역)



산새도 들짐승도 아직 잠에서 깨기도 전인 38선의 새벽 미명, 바로 1950년 6월 25일 북한공산군의 무자비한 남침 전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우리 국군은 탱크를 앞세운 공산군의 막강한 화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다. 최후의 전선인 이 낙동강 교두보가 무너지면 그들이 계획한 4단계 작전인 부산 함락은 초읽기에 들어간다. 이때가 바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처했을 때다. 이 위기의 국난 앞에 가장 노심초사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1948년 5월 31일 역사적인 제헌국회 본 회의록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이승만 박사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대한민국 독립 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목사)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은 기립하였고, 국회의원 전원이 다 일어선 상태에서 이윤영 목사의 기도가 시작 되었는데 그 기도 내용은 구구절절이 나라의 번영을 간구하는 기도였다.

그러나 기도가 끝난 뒤 스님 출신 국회의원이 역사적인 제헌 국회 개회에서 모든 국회의원을 강제로 일어서게 해놓고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기도를 강요한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일로서 이승만 의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들고 일어났다.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보자, 1952년 8월 15일 제2대 대통령 취임 실황 녹음 테이프에서 당시 국회의장 신익희씨의 육성을 그대로 옮겨 본다. “지금부터 헌법 제54조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의 선서를 하기 위한 국회를 개회합니다. 우리 삼천만이 존경하고 신임하는 이승만 박사가 이번엔 대통령에 재선되었습니다. 헌법 규정에 의해서 취임에 기해서 국회에서 선서를 행하게 되었습니다(박수소리).” 박수를 받으며 선서대 앞으로 나온 이승만 박사는 갑자기 단상에서 사람을 찾았다. “배은희 목사님 잠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선서를 할 순간에 이박사가 갑자기 목사를 찾으니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으며 그 웅성거리는

소리가 약 10초간 계속되었다.

장내가 다소 진정되자 이박사의 음성이 나왔는데 그 녹음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 얘기는 순서에 없는 것인데 내가 특별히 요청해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 말씀, 우리 다 모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임니다. 이 석(자리)에 무슨 하나님을 각각 섬기든지 그 하나님께 잠깐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잠깐 나다가 배목사의 육성이 나왔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하고 막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박사의 음성이 나왔다. 분명 배목사의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했는데 모기소리 같이 아주 약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그 귓속말이 “간단하게 두어 마디만 해.”라는 말이었다. 물론 이 귓속말은 장내 마이크 방송에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이 녹음 테이프를 재생해보는 사람만이 간신히 알아 들을 수 있는 미세한 음성이었다. 4년 전 제헌국회 개원식 때 탄핵으로 몰릴 뻔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오늘 기도는 그야말로 간단하게 두어 마디만 하라고 미리 지침을 내린 것이다.

한편 이날 배목사의 기도 시간은 정확하게 50초가 걸렸다. 배목사의 이날 기도는 장내 분위기 때문인지 기도의 말이 이상한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날의 기도를 그대로 옮겨본다. “오천년의 역사를 가진 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날은 저의 민족으로서 광복인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2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승만 박사로 하여금 하나님과 주권을 가진 국민 앞에서 선서식을 거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컨대 이 대통령에게 지혜와 충명을 더하시고 민주 우방으로 더불어 남북통일의 성업을 하루 속히 완수케 하옵시며 상하 양원으로 더불어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백년대계를 완수케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 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약간 들렸다.

오늘날은 국회의원 중 기독교인이 113명이나 되며 전체 의원 중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회에 별도의 기도실과 국회 조찬 기도회가 있으며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 조찬기도회도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오늘의 현황을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외로운 기독교인으로 고군분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절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박사는 이미 1899년 22세의 젊은 나이에 한성 감옥에서 손목에는 수갑, 다리에는 족쇄를 그리고 목에는 10kg의 무거운 칼을 쓰고 조만간 처형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 영문으로 된 <투옥경위서>에서 그는 “어느날 무심결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불러보고 자신과 나라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했다(참고문헌: 젊은 날의 이승만). 바로 그날 그 순간 이승만은 하나님은 분명 존재하며 특히 자신의 기도를 즉각 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 순간 성령 체험을 한 것이다. 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했음이 분명하다.

다시 한국 전쟁 당시 이야기로 돌아간다. 임시수도를 부산으로 옮긴 이승만 대통령은 그당시 영남지역의 목사들을 불러모아 구국기도회를 가졌다. 그날의 구국기도회의 주된 내용은 미공군 B29 폭격기가 낙동강 전투에 작전을 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 상공에서 계속되는 악천후의 날씨를 쾌청하게 해달라는 기도였다. 낙동강의 왜관 전투와 다부동 전투의 승패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인 것이다. 목사들의 뜨거운 구국기도회가 끝나자 한국의 상공은 구름 한점 없는 쾌청한 날씨로 변하고 있었다. 이때를 기다린 B29 폭격기 99대가 오기나와 기지를 이륙해 8월 16일 오전 12시경부터 4시간이상 공산군 진지에 용단폭격을 감행함으로써 공산군의 낙동강 도강을 차단시켰다. 만일 당시 B29 폭격기의 출격이 하루나 이틀만 늦었어도 낙동강 교두보는 무너졌으며 이 나라는 영영 공산국가로 변했을 것이다. 그만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구국기도회는 낙동강 전투에서 풍전등화에 놓인 국가를 구해낸 잇을 수 없는 위대한 기도 모임이었다.

오늘날 나라의 어려움이 생기면 전 기독교인들이 구름떼 같이 모여 뜨거운 열정으로 통성기도회를 갖는 것도 그 시작은 이승만 대통령의 구국기도회가 효시이다.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공식행사에서 각자 종교가 다른 반대편 사람들의 항의와 비웃음을 들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순서를 강행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틀림없이 존재 한다는 것을 천번 만번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박사는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전쟁 중 특히 낙동강 전투에서 조국을 구해낸 위대한 믿음의 대통령이었다. 낙동강 전선의 교두보를 구축하기 위해 희생당한 국군 전사자와 부상자가 1만여 명에 달했으며, 북한 인민군은 2만 4천 명이 사망하고 1964명이 포로로 잡혔다.

그로부터 52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인민군 2만 명이 최후의 발악을 했던 왜관의 강 건너 공산군 진지가 있었던 그 산 아래에는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다. 55일간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시산혈하(屍山血河)를 이루었던 낙동강 백사장에는 그때의 처참한 비극을 알 리 없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고 포연탄우(砲煙彈雨)가 지축을 뒤흔들었던 낙동강 언덕배기에는 염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주1) 김수호 남은 타 교회에서 장로 장립 후, 우리 교회로 이명하신 분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홍경환 선교사



태국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결혼식, 장례식까지 절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태국의 사원은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일, 문맹자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일 등 주요 사회사업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 공무원들은 당연히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교라는 종교가 온통 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의 단골 방문지인, 태국을 대표하는 에머랄드 사원에는 각종 부처상뿐 아니라 중국 조각상을 심지어는 마리아상까지 있고 태국의 현 9대 푸미폰 국왕의 사진도 향불과 함께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국인들의 불교는 매우 혼합된 종교양상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불교의 형식, 제도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의 각종 종교에서 하는 모든 의식과 절차를 다 함께 지키면서 좋은 것은 다 믿으려고 합니다. 집집마다 불상뿐 아니라 각종 우상들을 모셔 놓고 살고 있는 것을 태국의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미신과 조상도 섬기면서 중국에서 온 신들, 캄보디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국을 불교의 나라가 아니라 귀신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태국의 선교역사는 우리나라보다 50여년은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방콕에는 수십 년이 넘는 흰 벽돌의 서양식 장식이 화려한 교회들과 신학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인구는 0.2%를 넘지 못합니다. 180여년의 오래된 선교역사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의 수가 이와 같이 적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태국인의 전체 인구중 약 30%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국인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무관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들의 전통종교인 불교에 대한 믿음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종교의식의 가르침이 너무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더 철저하며 불교의 신앙교육의 일부는 기독교와 흡사하기도 합니다. 절에서도 기독교의 주일학교처럼 아이들을 데려다가 종교교육을 시키고 있고, 각종 학생회, 청년회 모임들도 기독교보다 더 활발한 편입니다.

둘째, 태국은 세계 각종 종교의 집합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닙니다. 그들이 비록 불교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불교만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도 동시에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 처럼 조상신에게 절하기도 하고, 새로운 믿음을 너무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태국에서 추방을 당했지만 무니즘(통일교)을 추종하는 태국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태국 사람들이 행운을 갈망하며 악운과 질병과 위험을 벗어나게 해주는 모든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태국인들의 삶의 환경은 사람을 조급하게 하거나 경쟁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따뜻한 기후와 일년 내내 쉽게 구할 수 있는 의식주, 그리고 태국 역사 속에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던 관계로 영적인 긴장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7월 5일 태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이 섬겨야 할 선교지는 바로 위와 같은 곳이기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우들에게 편지할 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를 요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하며 이제 사역지로 떠나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기를 소망하면서...

소 식

교구 한마음 야외예배를 마치고

김종걸 집사(화평 8구역)



지난 6월 6일은 아주 특별한 날로 서울여자대학교 운동장에서 3개 교구(희락·화평·온유)가 모여 야외예배를 드리고 게임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는 하루였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심은 야외예배 장소인 서울여자대학교의 잘 가꾸어진 교정을 보시고 하시는 것 같았다.

야외예배는 이승렬 목사님의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라는 설교 말씀을 들은 후 미니올림픽, 교구대항 계주, 줄다리기 등이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시종일관 질서있게 진행되었다. 사탕을 이용한 미니 농구, 줄넘기 등으로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어른들은 더욱더 동심으로 돌아가는 재미있고 보람된 날이었으며, 점심시간에는 각 구역별로 준비해온 식사를 함께 하는 즐거움도 맛보았다. 게임 가운데 굴렁쇠 굴리기가 있었는데

데 각 교구의 목사님들 차례가 되었을 때 화평교구 홍경환 목사님은 열심히 굴렁쇠를 굴리려고 노력했으나 굴렁쇠가 자꾸 넘어져 성도들 마음을 조마조마 하게 하였다.



야외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겪는 어려움과 진리 가운데 겪는 갈등, 직장 속에서의 스트레스와 시기심 등 신앙인으로서 불필요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야외예배는 평소에 얼굴만 알았던 성도간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좋은 형제 자매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야외예배 행사를 마친 후 서울여자대학교 총장이신 이광자 권사께서 서울여자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지·덕·술(知·德·術)을 겸비한 여성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임을 설명해 주시고, 바른 생각·바른 마음·바른 행동을 키우는 '바름교육센터'를 안내해 주시어 함께 둘러보는 기회도 가졌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라면 이 세상 어느 곳도 에덴이라는 생각이 든다. 야외예배 시간 동안 기쁨과 나눔과 사귀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귀한 시간이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곳에서의 하루가 너무 짧아 아쉬웠다. 자주 이런 기회를 가져 성도들간의 사귀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농촌교회에서 온 편지

지난 20개월간의 목회를 돌아보며

서상희 목사(경남 산청군 반천교회 담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12:24」

자연에 무지한 딸을 이곳으로 보내셔서 농사일을 통하여 요한복음12:24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 드린다. 복음의 뜨거운 열정

하나만 가지고 이곳에 온 지도 어느덧 20개월째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어린 목사지만, 농사일에 있어서도 역시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 수시로 텃밭에 나가 보지만, 아직까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 지 알 수가 없다. 지난 2000년 가을에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농촌에 대하여 무지하여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했었지만, 얼굴이 햇볕에 그을리고 손톱 밑이 흙으로 까맣게 된 것을 보며 조금씩 조금씩 그들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행복해진다.

글을 써 내려가다 갑자기 지난 날들의 일들이 하나씩 떠올라 웃음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성도들이 목사가 오면 먹게 하려고 심어 놓은 채소를 풀인 줄 알고 사정 없이 밟고 다녀 모든 분들을 놀라게 했던 일. 어느 집사님이 콩을 심어 주시며 잘 가꾸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뒀다가 잡초 밭으로 만들어 놓았던 일. 교회 앞 화단에 있던 꽃나무를 썩으로 착각하여 호미를 부러뜨리면서까지 열심히 뽑아 버렸더니, 그게 썩이 아니고 꽃나무여서 미안해 어쩔 줄을 몰라 했던 일. 교회 마당에서 작설 잎을 따 차를 만들면서 실수하여 가루를 만들어 버려 어쩔 수 없이 전부 버려야 했던 일. 마을 아주머니들이 나물을 뜯으러 산에 가자고 하셔서 따라 갔다가 자꾸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슬그머니 도망 왔더니, 나물을 뜯다 말고 목사가 없어졌다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 놀라게 했던 일. 고추 농사를 도와 주셔서 가을에 탐스럽게 고추가 열리자 따서 말려야 한다가에 겁없이 따다가 모기한테 수도 없이 물려 기가 막혀서 울었던 일. 교회 재래식 화장실을 푸게 되었을 때, 아침 9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4시까지 무려 열다섯동이를 혼자 푸고서 3일 동안 몸살을 앓아야 했던 일. 간장과 된장 그리고 젓갈을 담그면서 실수했던 일. 등등.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지나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이기에 감사하다.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하여 늘 대형 사고를 일으키지만,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성도들이 계시기에 조금씩 조금씩 농촌 아낙이 되어 가나 보다.

이런 부족한 사람에겐 그래도 주님께서 노인복지시설을 하게 하시려고, 미리부터 이런 실수를 통하여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소외되고 외로운 노인 분들을 모시고 살고자, 4월부터 건축현금을 시작했다. 땅을 구입하려면 1,500만원이란 엄청난 물질이 필요하지만, 어느새 통장에 51만원이 저축되어 있음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은 이미 부자가 되어 행복해진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기에, 우리 모두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 꼭 기적을 이룰 것으로 믿는다. 장애인(정신박약)들과 가난한 사람들 몇 몇 만이 모여 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시간만큼은 목사도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

매일 매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소중한 성도들이 곁에 계시며, 외부로부터의 뜨거운 기도와 사랑이 쉬임없이 이어지기에, 이 순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해 본다.

시

영혼으로 부르는 노래

오종세 안수집사(화평 5구역)



상한 날개 끌리면서

아기처럼 품에 안겨 오르니

서른 아홉 살 해맑은 얼굴

몸은 휠체어에 맡기고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어

더없이 가난하고 더없이 가벼워

웃는 듯 일그러진 입술로 '축복송' 부른다

무슨 소망 지녔는지

태어나면서 퍼지지 않는 손

누구에겐가 간절히 내밀면서

검박이는 서러운 눈으로 '축복송' 부른다

평생 의자에 붙들려

잠 못 이루며 뒤척이듯

흐느끼며 어깨를 들썩이듯

묵인 채 꿈틀대는 몸으로 '축복송' 부른다

뜨거운 물결 가슴 가득 출렁이어

떨리며 그 이름 부르짖으니

가슴 속 깊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이

모두들 뜨거운 눈물로 '축복송' 부른다

산비탈 어둠침침한 움막 속으로

해맑은 얼굴 떠오르며 다가올 때

'너의 영혼 얼마나 아름다운지'

* 지난 5월 19일 청년예배에 참빛공동체 장애우를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린 후, 김남욱 자매의 '축복송' 찬양을 듣고서.

오스 기니스의 『소명』을 읽고

좋은 신앙서적 읽기 모임

「좋은 신앙서적 읽기 모임」은 지난 6월 9일 오스 기니스가 쓴 《소명(부르심)》에 관하여 독서토론을 가졌다.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 나를 지으신 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삶의 현실을 넘어 그 분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궁극적인 존재 이유

인생은 결국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론 성공은 과연 진정한 성공인가? 그 성공은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면서 이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가? 크든 작든 온 세상을 얻었지만 우리의 영혼을 헐값에 팔아 넘긴 채 정곡에서 빗나가는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당신은 사회에서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위커 펄시).”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 갈망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가 창조된 구체적인 목적, 곧 우리가 부름 받은 목적을 발견할 때에만 비로소 이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창조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며 인간의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다. 이러한 부르심을 떠나서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허무감·무관심·나태함의 유혹에 굴복하게 된다.

소명(부르심 · the Call)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부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 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일차적인 소명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일차적으로 하나님에게 부름 받는 것이다. 우리의 이차적인 소명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해야 한다. 우리는 가장 고상하고 인간다운 차원에서 이 세계와 인생의 배후에 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 반응하고 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우리를 개개인으로 보고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말한다. 아주 세밀하게 부르신다. 즉 우리를 독특하고 특별하며 고귀하고 중요한, 아울러 자유로이 반응하는 존재로 대하

다. 인간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다. 부름 받는 존재는 자유와 미래를 강조한다. 우리가 그분의 부름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응답하고 그 분의 부르심을 좇을 때만 진정한 자아가 되고 자신의 본인의 모습이 된다. 우리의 일차적인 소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매일 매일의 의미를 추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일의 세계에 ‘가치관과 소명’을 주입시켜야 한다. 일의 의미와 높은 목적 의식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일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로 변모할 때 변혁이 일어난다. 일차적인 소명이 우선 순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배경이 되는 예배를 회복하고, 부르심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회복함으로써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지,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일을 너무나 즐기고, 좋아하고 사실상 일을 예배하는 나머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또는 우리 이름을 장차 길이 남기기 위해, 하나님 그 분 자체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인간적인 성향으로 가는 길을 막는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로 부름 받았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다른 어떤 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그분의 것이 되라.”는 말이다.

타인을 위한 우리의 길

하나님은 보통 우리의 재능에 부합되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재능의 목적은 청지기직과 섬김이지 이기심이 아니다. 소명의식은 직업 선택에 선행해야 하고, 소명을 발견하는 길은 우리 각자 창조될 때 부여받은 재능을 분별하는 것이다. 우리의 재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능은 항상 “타인을 위한 우리의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연의 자아가 되도록” 부르시고 우리의 존재에 걸맞는 일을 하도록 부르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소명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떤 청중의 찬사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마련이다. 어떤 청중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유일한 청중이신 그 분 앞에서 사는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사람들로부터 격려 받지 못하더라도, 남의 눈에 띄지 않더라도, 공공연하게 떠벌이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편

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결코 사람의 호의나 미소에 주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분이 당신에게 미소 짓고 계신다면 사람의 미소나 찡그림에는 상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마무리

소명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 목적 의식을 갖고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가운데 인생 여정을 걸어 가도록 박차를 가해준다. 우리의 소명의식이 우리가 맡은 최고의 과업보다 더 깊고, 더 높고, 더 길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 받기 전에 먼저 어떤 존재가 되도록 부름 받았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여행을 한 다음 드디어 집에 도착한다. 수십 년 동안 목소리만 들 어오다가 이제는 얼굴을 보고 실체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 부르 신 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그 마지막 소명은 본향으로의 부르심 이다.

제 언

기분 좋은 악수

최상용 안수집사(화평 5구역)



몇 년 전 주일, 화장실을 나오다가 교회 복도에서 집사님 한 분을 오랜 만에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리니 악수를 청하신다. 잘 말리지 않은 축축한 손을 내밀기가 죄송스러워 엉 겨주춤 하다가 손을 내밀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그 집사님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해서였다.

그 이후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씻은 손이 뽕뽕송송해질 때까 지 잘 말리고 화장실 문 밖을 나오려고 작정했다. 하지만 여기 에도 문제는 있다. 송풍기로 건조 시키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 래 걸리고 간혹 약간 덜 말린 날은 어김없이 악수할 분을 만난 다는 것이다.

손의 청결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위생에 중요하다. 또한 친근감의 표시인 악수를 할 때 청결한 손은 대인관계 에서 본인의 편안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 손을 맞잡은 타인에 게도 청량감을 줄 수도 있다.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은 한 번만 쓰면 축축해져 뒷주머니에 다시 쑤셔 넣기가 싫어진다. 그래서 벌써 몇 년째 교회 가방 앞 쪽 작은 포켓에 타올을 접어서 가지고 다닌다. 넓지도 않은 화

장실에서 오랫동안 그 건조기를 독점하기가 미안하기 때문이다. 일회용 종이 타올이나 요즘 선진국에서 쓰는 쾌속 송풍기가 있었 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날 만나는 친근한 분들께 자신 있게 손 을 내밀고 싶다.

교 회 소 식

1. 창립 14주년 기념 행사가 다음과 같이 열렸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주관 창립14주년 기념 음악예배: 6월 19일(수) 오후 8시 대예배실

홍경환 태국선교사 파송예배: 6월 26일(수) 오후 8시 대예배실

창립 14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6월 30일(주) 오후 3시 대예배실

2. 임직 받으신 분

■ 권사: 전영선, 이영남A, 이광자, 장혜경, 이창성, 김옥라, 김형기, 신관수, 강옥희, 박인숙A, 오점덕, 이경희A, 김혜숙A, 오영실, 박순실, 김영숙C

■ 안수집사: 조남홍, 오종세, 최경호, 정해춘, 손달진, 김영봉, 한형 석, 김경덕, 정용섭, 강응순, 박종규, 한상곤, 조성득

■ 장로: 황기언, 김현덕

3. 2002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여름수련회 일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영아부: 7월 14일(주일) - 15일(월)

교회(14일)와 새문안교회 수양관(15일)

유아 1, 2부: 7월 14일(주일) - 15일(월)

교회(14일)와 새문안교회 수양관(15일)

유치부: 7월 14일(주일) - 15일(월), 새문안교회 수양관(경기도 가평)

유년부: 7월 28일(주일) - 30일(화), 부림 관광농원(경기도 안성)

초등부: 7월 25일(목) - 27일(토), 부림 관광농원(경기도 안성)

소년부: 7월 25일(목) - 27일(토), 중부수련원(경기도 광주시)

중등부: 7월 24일(수) - 27일(토), 제주 사랑의 집(제주도)

고등부: 7월 28일(주일) - 31일(수), 동아인제대학(전남 목포시)

4. 국내선교위원회 군선교팀에서는 군복무중인 자녀와 입대예정 자녀를 위한 사랑의 양육 및 비전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접 수 : 교회사무실(접수양식은 1층 안내대에 비치)

■ 기 간 : 2002. 6. 15. - 7. 30.

■ 문 의 : 국내 선교위원회 기간선교부 군선교팀

(이종석 안수집사 : 011-272-0324)

5. 캄보디아 의료선교봉사가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캄보디아 축 지역(이성 민선교사 사역지)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사) 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최상용 안수집사 546-2823, 011-398-420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성경퍼즐 지난호 정답

■ 가로

1. 여호수아 3. 스테반 5. 리노 6. 야하스
8. 기드온 10. 미스바 11. 아라랏산
12. 어린양

■ 세로

1. 여디디아 2. 아굴라 4. 데나리온
7. 스룹바벨 8. 기브아 9. 호산나
10. 미갈 12. 라브리

■ 가로열쇠

1.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귀환하여 백성들을 청렴하게 다스린 지도자 (스 2:1~2)
3. 헬라의 의미는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요 16:4~8)
5. 디모데의 외조모 (딤후 1:1~5)
7. 바울이 문안한 로마의 성도 (롬 16:15)
9.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 (출 6:23, 28:1)
14. 빌립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 (요 1:43~51)

■ 세로열쇠

1. 신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시드기야왕을 사로잡아 간 자 (렘 39:4~7)
2. 가버나움의 회당장으로 병든 딸을 고쳐주시기를 예수께 구한 사람 (막 5:21~24)
4. 소아시아의 일곱교회중 하나로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 받은 교회 (계 3:1~6)
6.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창 16:11~16)
8. 성령강림절로서 구약에서는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함 (행 2:1~13, 출 23:16, 34:22)
10.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쳤던 곳 (민 33:12~15)
11.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 (막 15:40~16:1)
12. 엘가나의 아내로서 기도와 서원을 통해 아들을 낳음 (삼상 1:1~11)
13. 사무엘의 장자 (삼상 8:1~3), 브두엘의 아들인 선지자 (행 2:16)

■ 정답 보내주신 분

한경숙(자비 2구역), 이희순(자비 3구역), 김혜관(중등부 2학년) 교우께서는 교회 사무실에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정답을 아시는 분은 8월 11일까지 정답을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신 분 가운데 세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문의: 교회 사무실, 416-5181).

알 립 니 다

함즐함을 출판부에서 알립니다.

함즐함을 출판부에서는 성도들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하늘을 향해 다 함께 웃고, 힘든 일도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고를 기다립니다.

시론, 수필, 제언, 시, 감상문, 간증 등의 원고를 기고하시는 분의 사진과 함께 8월 11일(주일)까지 교회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 김완중 안수집사).